

조계종 제12대 종정 법전 스님 재추대

14일 원로회의서 결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대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현 종정 법전 스님(해인종립 방장·사진)을 재추대하기로 결의했다.

도립법전(道林法傳) 스님은 세남 82세, 법랍 68세로 19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계를 수했다. 49년 성철·정답·향곡 스님과 봉암사 결사회에 참여한 이래 제방의 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85년부터 해인사에 주석해 왔으며, 96년 해인총림 방장에 추대됐고, 2000년부터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 3월 제11대 종정에 추대됐다. 이날 회의에는 종산 지혜 보성 도



원 지중 활안 녹원 원명 이두 천운 동춘 진제 초우 혜정 고산 스님 등 15명의 원로의원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호계원장 범등,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법전 스님 이력 및 수행일화는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교수 연봉제 실시
 단과대 분권형 시스템

강한 혁신 큰 비전

동국대 오영교 총장 '108프로젝트' 발표... 경영·연구시스템 개혁 등

'고객 감동, 연봉제, 직원 다면평가...' 기업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동국대 개혁안에 등장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인 오영교 동국대 신임 총장이 동국대 개혁에 급시동을 건 것이다.

오 총장은 3월 13일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재임 4년간의 경영방침과 대학 발전 전략 등을 담은 '108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 과제는 '신경영시스템 창출' '교육연구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환경 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개다.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직원 연봉제 실시다. 동국대 교수들의 급여 수준을 서울시내 상위 5개 대학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내년부터 기본급 70%, 성과급 30%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오 총장은 "동국대는 성과급의 자등폭을 최대한 넓힐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동일 직급에서 최상위자와 최하위자 간 연봉 차가 1000만원 이상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과대학장에게 예산집행은 물론 신입교수 채용을 포함한 교수 인사



3월 13일 동국대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오영교 동국대 신임총장이 '108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자율 시스템 도입도 혁신적이다. 이 제도에는 목표 달성 실적과 성과에 따른 책임 평가도 병행된다. 예를 들어 취업률이 낮거나 입학경쟁률이 떨어지는 학과의 경우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최대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과감한 교원 평가도 이번 개혁의 빼놓을 수 없는 발전방안 중 하나다.

교수 연구논문의 질과 국제화 교육 노력, 산학연구 유치실적, 학생 만족도, 기금 모금 등 철저한 실적 위주의 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평가결과 성적이 저조한 교수들은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거나 안식년을 제한하겠다는 강경책도 포함돼 있다.

108프로젝트에는 행정조직의 팀제 전환도 들어 있다. 또한 대학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경영부총장을 영입하기로 했다. 총장 직속으로 학

신관리팀과 고객만족 경영팀도 신설하는 등 대학에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전자결재시스템과 온라인 회의 및 보고 등을 통해 보고체제도 간소화 시켰다. 이외에도 108프로젝트에는 △영어 강의료 전체강의의 30% 수준으로 증설할 것 △신규 교원 영여강의 의무화 할 것 △1만5000명 규모의 산학협력관 착공 등이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새싹들자를 키웁시다' 캠페인
 종립학교에 신문보내기
 후원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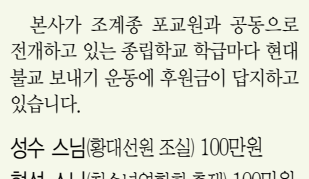
성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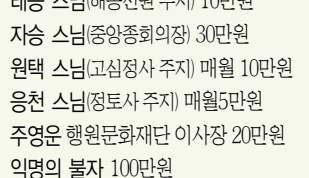
현성 스님



태운 스님



원택 스님



주영운 이사장

본사가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종립학교 학급마다 현대 불교 보내기 운동에 후원금이 담겨지고 있습니다.

성수 스님(현대선원 조실) 100만원
 현성 스님(해동선원 총재) 100만원
 태운 스님(해동선원 주지) 10만원
 자승 스님(중앙종회의장) 30만원
 원택 스님(고심정사 주지) 매월 10만원
 영천 스님(정토사 주지) 매월 5만원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20만원
 익명의 불자 100만원

● 후원 계좌: 038-25-0008-365 (국민은행 현대불교)

● 후원 문의: (02)2004-8237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 신수회(信修會)

금번 우리 불교의 특별한 만남인 '2007 한국불교박람회'에 신수회에서도 무공예전통사찰 식물을 전시합니다. 금강경 독송회에서 수행의 정진과 정성으로 빚은 장류 등을 판매한 수익금의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와 새싹불자육성사업에 쓰여집니다. 모든 분들 드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없는 분들이 정성껏 만든
무색소·무방부제·무첨가물의
순수자연 발효 식품

※ 토종 향이리에서 숙성된 장류 및 정교정 내내
 원장(재령, 국산향(조명산향, 고추(보리)장향, 황기향, 들기름,
 3회국향, 5회국향, 동국향(보리), 한 달인, 씨계용, 우유)

제조원: 포항 금강정사 054-261-2231 부산 051)514-3566
 http://cafe.daum.net/hbshinsu

I Love Buddha / 봄소식

용정은(www.zentoon.com)

기만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구름, 바람, 나무, 새, 꽃...
 어느새 모두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현대불교

본지 독자위원회 구성...지면 개선·기획 제안 등 '열린 편집국' 지향

현대불교신문이 제작의 중심을 독자에게로 이동합니다. 편집국 중심의 제작 관행을 버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편집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독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독자위원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와 가독성 높은 지면구성은 물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요임무: 기사에 대한 평가, 기획 및 연재물 건의, 잘못된 단어사용이나 오타발 지적, 지면개선 및 현대불교 발전을 위한 의견 건의 등.
- 처우: 의견서에 대한 원고료 지급, 본사 간행 도서 제공 등.
- 신청서류:
 - 자기소개서 1부
 - '현대불교를 읽고' 의견서(200자 A4용지 1매 내외) 1부
- 모집기간: 2007년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wwkim000@naver.com
- 발표: 2007년 4월 2일 붓다뉴스 홈페이지

■ 공모분야: 현대불교 독자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10명
 ■ 응모자격: 현대불교신문 3년 이상 구독 독자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佛

전시기간 | 2007. 3. 27 (화) ▶ 5. 24 (목)
 개관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TEL 02)2011-1960~8 / FAX 02)732-4474

오시는길 | 1호선 중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조계사 방면
 www.buddhism.or.kr/_muz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